

# 한국축산업발전사의 산증인 협회 황영구 고문, 우리결을 떠나다



협회 황영구(호. 동송(東松)) 고문(91)이 지난 3월 1일 노환으로 별세, 우리나라 축산업의 큰별 하나가 사라졌다.

한국축산업발전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 황영구 고문은 1915년 3월 27일 강원도 회양군에서 출생하여 춘천농고와 일본수의학교를 졸업하고 광복이후 농사개량원 교도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중앙농업기술원 시험국 축산과, 국립제주목장 장장, 농림부 축산국장 등 농축산 행정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의 모든일생을 국내 농축산업과 함께 하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늘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했던 고 황영구 고문은 맡은 직무에 열정적이고 강직한 동시에 온화한 성품과 포용심으로 주위의 모든 축산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1961년 말부터 농림부 축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축산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많은 업적을 수행하는 한편, 축산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표함으로서 많은 농축산농가와 축산학도 등 전 축산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다.

특히 고인은 본회 제2대(1982년 3월 3일 취임)와 제6대(1988년 말 취임)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장본인으로, 본회 협회장으로 재임 이전부터 1967년 농림부 낙농심의회 위원, 1974년 농수산부 낙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여한 바가 컸고 한국낙농학회, 한국축산학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왕성한 학회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월간낙농육우 등에도 수많은 기고활동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농육우산업을 비롯, 국내축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는 지난 월간낙농육우 2월호에 “축산은 공익산업(共益産業), 인류는 몽리공생(蒙利共生)”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으며, 이를 끝으로 독자들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